

지역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노영희¹, 박종희^{2*}

¹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²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 전문연구원

A Study on the Support Plan for Revitalizing the Local Humanities Ecosystem

Younghee Noh¹, Jonghee Park^{2*}

¹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²Researcher, General Center for Convergence Research, Konk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지역 인문학 생태계 조사와 지역 인문학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으로 첫째, 지역 인문학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둘째,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 활용사업 방안을 찾고자 하였고 셋째, 지역 인문학 생태계 발전 연구인력 양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넷째,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함이 부여된 지역 인문학 생태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립하는 데 있다.

주제어 : 인문학, 인문학 생태계, 지역 인문학, 인문학 활성화, 지원방안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cal humanities eco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local humanities. A plan(measures) was suggested to vitalize the humanities ecosystem for local residents through this study. First, We looked at the support measures for local humanities. Second, we tried to find a measure to utilize research manpowe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humanities. Third, We study ways to train researche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humanities ecosystem. Fourth,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job cre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humanities. This analysis aims to establish a support plan for vitalizing research on the regional humanities ecosystem that reflects the local culture and regional specificity.

Key Words : Humanities, Humanities ecosystem. Local humanities. Vitalizing humanities. Support plan

1. 서론

좋은 도시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며,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찾아낼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긍정적인 참여가 기본이 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한 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지역에 대한 연

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인문학 생태계 전략에 있어서도 인문학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문학적 접근에 기반한 지역 생태계란, 인간이 기본이 되고 그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의 재생을 전략으로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역의 재생 형태와는 다른 의미이며,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조력에 바탕을 두는 신진 형태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

*Corresponding Author : Jonghee Park(whdgm18495@naver.com)

Received March 8,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rch 31, 2021

Published June 28, 2021

문학적 생태계 요소를 파악하고 인문학이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문학적 자원을 발전시켜 지역의 인문학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인문학의 생태계를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해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활용하여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자산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지역 자산들은 단순히 지나간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개념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생활의 형태가 근거로 된다는 미래적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1], 그 활용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인문학 생태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인재가 소속 지역의 인문학 자원에 대해 연구하고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 인재가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이들을 활용한 전문 인력 활용사업을 펼쳐 지역 주민에게는 인문학적 소양과 행복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구에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인문학 생태계와 관련된 연구들과 보고서 등을 분별하여 조사하였을 때, 인문도시의 평가 모델, 문화적 예술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문화콘텐츠에서 여러 방면으로 실행되어지고 있으며, 지역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인문학 재생 프로그램 운영과 노력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문학적 도시 자원이나 인문학 생태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수요의 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송은하(2013)는 도시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인문도시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정립된 인문학을 바탕으로, 생태계와 연결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지표화 하였다. 이는 인문학적 관점 또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문학 생태계의 상황을 진단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인문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였다[2].

박수현(2013)은 구도심 재생 활성화의 문화예술 프로

그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적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술가와 상인이 결합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유입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발자취는 원주민들의 소비성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시장만의 문화적 특성을 키우면서 여러 형태의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본틀을 구축하였다[3].

박경순(2015)의 연구에서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노인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고찰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대답들은 주관적인 생활의 관점이 크고 자신에 대한 존중함의 기대가 세밀한 합리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문학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안에서 인문학을 여러 방식으로 인문학이 가지는 가치를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있었다[4].

또한, 지역에서는 인문학을 주제로 하여 일정기간 내에 여러 형태의 인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공연과 체험 등을 기획하여 진행함으로써 인문학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인들을 통한 특별 강좌와 색다른 취향의 여러 갈래 공연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5]. 이처럼 인문학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분야들을 서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발전하여 나아감으로써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의 특색들을 살리면서 인문학의 생태계를 확산하는 일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 자료로 지역문화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동들의 지역성에 대한 정체성이 고취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도 있으며[6,7],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안을 살펴보면 학습자 및 학습 활동들 간의 이어지는 연계성과 그 과정의 의미성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8].

김동구(2016)는 학습활동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변형이나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교류나 개인적인 학습효과보다는 함께 학습한 결과들을 다시 활용하여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주어 해결하거나 소통의 공감대를 키울 때 서로간의 친밀감을 가지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함께 나누는 정서적인 그 친밀감은 함께하던 학습활동과 이로 인한 각자의 성장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였다[9].

여러 분야의 인문학은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역공동체 인문학 프로그램 현장에서도 인간 활동의 성장에 가까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지역사람들과의 지역성 의식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의 종교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종교적 문화 함양과 만족도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이 자신의 내면적인 소양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현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행복감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인문학이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지역 인문학 생태계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지역 인문학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2: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연구 인력의

양성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3: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4: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지역 활용사업 방안은 무엇인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 인문학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분석 과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인문학 생태계에 관련된 지역 사회 인문학 활동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 인문학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문학 생태계를 조사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관련 문헌조사와 더불어 각 지역 보고서 및 지역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역 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료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생태계 활성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넷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인력 양성 사례를 분석하고 인문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분석하여 인문학 생태계의 활용도에 쓰여 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와 연구내용은 Fig. 1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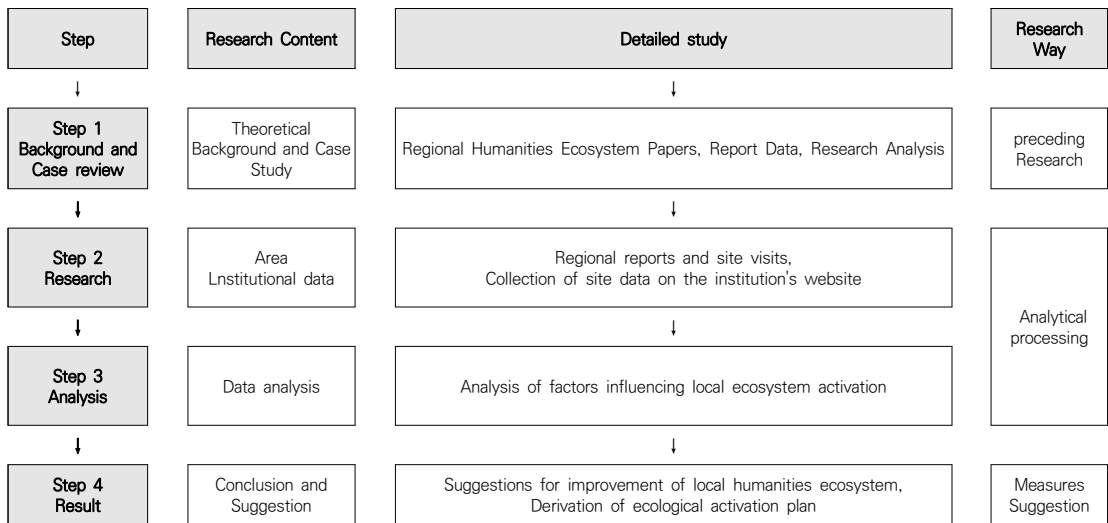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dures and contents

4. 연구결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해 각 지역의 홈페이지와 각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학의 자료들을 수집 하였다. 5개 지역 인문분야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소통 506(31.5%), 환경291(18.1%), 예술361(22.4%), 문학447(27.8%)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지역 인문학 활동에서 소통506(31.5%)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 분석의 결과는 Fig. 2에 나타났다.

4.1 지역 인문학의 활성화 방안

4.1.1 지역 주민의 참여 필요

지역 생태계를 활발하게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자신들의 요구들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으며,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기에서의 지역민 참여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나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역으로서 생활 속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그것들을 이용한 발전 가능성은 함께 상호관계를 이루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즉, 지역민들이야말로 그 지역 생활 주체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곳의 향후 발전과 이루어질 지역 성장 사업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역 활성화에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추진 일들에 대해 먼저 결정할 수 있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협동과 소통을 이루어 보다 쉽게 추진사업을 실천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소통분야에서 506(31.5%)를 차지

한 것을 보아,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발전은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심어져갈 때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애항심도 커지고 그곳 지역들은 오랫동안 살고 싶은 인문학적 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4.1.2 지역의 잠재된 창조적인 자원 활용

역사적으로 지역 문화 자원 활용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치적으로나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그 지역에 나타나는 무형 문화적 특성 속에 나타나는 무형 문화재들의 잠재된 유산들을 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승되는 무형적 잠재된 유산들을 전승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도 형성되기 때 문이다[10].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적 문화 자산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들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들이 많다. 단순히 역사적인 자원과 문화적 자원성의 활용을 넘어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루어 상호소통과 화합을 이룰 때 진정한 지역의 문화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1.3 지역민 인적자원 활성화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에게 활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역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함께 생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에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사업들을 준비한다면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크게 감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키워주는 것을 통

Area	Communication	Environment	Art	Literature
Seoul	235(44%)	49(9.1%)	38(7.1%)	211(39.5%)
Gyeonggi	84(42.2%)	8(4%)	60(30.1%)	47(23.6)
Daejeon	128(20.6%)	127(20.4%)	240(38.7%)	125(20.1%)
Busan	11(10%)	50(45.4%)	19(17.2%)	30(27.2%)
Gangwon	48(33.3%)	58(40.2%)	4(2.7%)	34(23.6%)
Total	506(31.5%)	291(18.1%)	361(22.4%)	447(27.8%)

Fig. 2. Humanities data analysis

한 지역민들의 여가생활 실천에 기여할 문화전달자가 지역에 현재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전문적인 문화전달자들은 지역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창조적인 문화적 사업이나 활동들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활속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일임하게 될 것이다[11].

4.1.4 주민참여 문화 예술프로그램 활용

한국의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자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가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양한 축제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 주체의 지역이 되기 위한 장기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하다[12].

본 연구의 예술분야에서 나타난 361(22.4%)건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인문 생태계에서 예술분야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기획 및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별,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들과 문화적 사업들을 다른 영역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때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4.2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방안

4.2.1 인문학 전문 연구 인력 교육 지원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인문학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의 직업이 안정되어야 하고, 지역적,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선진 연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과 알선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문학 인턴지원제도를 활성화가 필요하다[13]. 이와 같은 인문학 전문 인력 교육사업의 결과는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에서는 사회적으로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관과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나아가서 서로 상호 협동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알게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14].

4.2.2 지역의 인문학 인력 소양 교육

각 지역의 역사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전승할 수 있는 지역 인문학 생태계의 발전은 인문학 진흥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문학적 교육은 피교육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키우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생활 속의 행복감을 키우고 생활 속의 가치를 느끼며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지역민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결국 인문학 교육은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교양적 인격을 키우게 지원함으로써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속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의 인문학센터 등을 지원하고 지역 소속의 연구소 및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지역 인재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12].

4.3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4.3.1 정책 수단별 일자리 사업지원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기준 삼아 살펴보면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동력 보강,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5].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교육훈련을 비롯한 일자리 유지와 직접적, 간접적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16].

4.3.2 지역 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잠재되어 있는 지역 안의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 연결 등을 통하여 그 지역의 고용 이슈를 찾아내고 발굴함으로써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과 관심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전략적인 산업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질 높은 일자리를 찾아내기 위한 고급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나 커뮤니티 친화적 사업은 지역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며, 결국에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17].

4.4 지역 인문학발전을 위한 지역 활용사업 방안

4.4.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은 콘텐츠는 진실성과 실행성이 저하되므로 지역의 역사·문화·인물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과정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 자산은 생활 속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지역의 마케팅에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찾아오는 타 지역 사람들이 즐기면서 우리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과 함께 지역만의 정체성이 담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인물, 유래 등과 같은 상품 속에 이야기를 담아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각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여 대표성을 나타내는 상품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4.4.2 지역 산업과 연계한 상품성 확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지역소개 사업과 관련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각 도시의 역사 투어의 경우, 도장 투어 후 모든 장소의 도장이 찍혀진 안내지도를 제시하면 해당 상점의 소매가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투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연계되므로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지역 인문학이란 문화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공간 영역으로서 지역의 생활 방식과 가치의미 속에서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삶의 속에서 서로의 공동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적 이상을 전망하는 지향점을 가지면서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문화이다.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할 때,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 인문학을 활성화하는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개토론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공개토론은 정부안보다 더 유익한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인문학 생태계 활성화 과정에 공청회나 토론회에의 주민참여는 지역의

생활과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의 의견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인문학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한계점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문학적 생태계를 통한 지역 인문학 활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도출하여 전문행정가, 인문학 도시 재생 전문가, 그 지역의 주민들 및 찾아오는 타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인터뷰나 설문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침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D. J. Kang. (2013). Exploring a Definition of Urban Heritage with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8(6), 253-267.
- [2] E. H. Song. (2013). *The logic and reality of the humanities approach to cities*. Doctoral dissertation a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 S. H. Park. (2013).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old city center through culture and arts program*. Master's thesis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 [4] G. S. Park. (2015). *Current status and revitalization plan of the elderly culture and arts education*. Master's thesis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 [5] D. G. Song, Y. H. Noh & W. J. Kwak. (2019). A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4), 179-194.
- [6] Y. H. Noh & H. O. Jeon. (2020). The Effect of Every Corner Chungju Expeditionary Program on Children's Community Awareness and Affe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4), 2029-2043.
- [7] S. J. Jung & H. S. Park. (2016). The Effects of Cultural Experimental Activities Based on Children's Local Traditional Songs Upon Young Children's Local Community Spirit, Musical Ability and Interest in Korean Music.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4), 137-164.
- [8] H. G. Lee & H. S. Park.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Culture Education Program on Young Children's Picture Representation A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26(2), 169-189.
- [9] D. G. Kim. (2016). The Effects of the Community Center Programs on Formation of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The Case of Seowon-gu, Cheongj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 [10] J. E. Park. (2017). Diverse Values of Intangible Heritage -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2003 Convention and the New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Law of South Korea. *Intangible heritage*. 0.3 : 225-244.
- [11] Y. J. Ji. (2011). *Plan to revitalize local culture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aster's Thesis.
- [12] B. W. Park. (2016).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Local Festivals through Gangneung Danoje Festival. *Culture and Arts Contents*. 16 : 89-112.
- [13] G. S. Jung. (2014). Linkage between social economy and lifelong education -A combination of alternative movement and learning-, *Lifelong Education Research*, 20(1), 189-211.
- [14] Kyung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Economy Professional Training Project Group. (2014). *Local university specialization project, new selection business plan*, Kyung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15] H. J. Kim. (2010). Employment policy pla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n connection with government employment support policy,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16] G. B. Nam. (2014). A Study on Job Creation Plan through Information Village. *Korean Policy Research*, 14(1), 147-162.
- [17] P. T. Nahm. (2012). Locally Tailored Jobs Creation Support Initiative: Current Status and Policy Suggestion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22, 155-174.

박 종 희(Jonghee Park)

[정회원]



- 2020년 8월 : 대전대학교 심리학박사
- 2021년 1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융합연구총괄센터 전문연구원
- 관심분야 : 융합, 지식콘텐츠
- E-Mail : whdgm18495@naver.com

노 영 희(Younghee Noh)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지식콘텐츠연구소 소장
- 2017년 9월 ~ 현재 :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장
- 2017년 9월 ~ 현재 : 융합연구총괄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국제연구협력, 지식콘텐츠, 정보시스템
- E-Mail : younghee.korea@gmail.com